

## 경임부의 정체감 경험

김 영 희\*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과거로부터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 규범, 가부장적 전통, 시대가문중심의 가족제도의 인식들이 뿌리깊게 내재되어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재생산적 능력'을 여성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인정하여 여성은 선천적으로 '모성을 지닌 존재'로서 남편과 가문을 위해 남아출산과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생활유지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어머니로 인식되어 왔다(김은실, 1996; 박영숙과 이은희, 1997; 이연정, 1994, 1995, 1996; 조혜정, 1991, 1997; 최재석, 1976; 한남재, 1999). 그러나 현대산업화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여성 취업률의 증가,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 여성 사회참여 증대, 핵가족화, 가족주기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가사보조기구의 확대에 의해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에 투자하는 기간의 축소, 여성주의의 영향 등으로 여성이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의 평등과 개성을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천해오면서(여성특별위원회, 1999; 통계청, 1995, 1999; 황지영, 1997), 전

통적인 모성적 가치관과 여성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유교규범 및 혈연중심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가치의식과 여성주의적인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모성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엄영미, 1998),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어머니들의 건강신념과 건강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생물학적 현상만이 아니라 출산사건이 일어나는 문화적 맥락내의 가치, 신념이 '사회'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며(김은실, 1996; 유은광, 2000; Khalaf & Callister, 1997; Petchesky, 1980), 우리나라의 첫 자녀 출산과정에 대한 연구들(김영희, 1998; 김혜원, 1996; 박영숙, 1991; 박영숙과 이은희, 1997; 이은희, 1995; 이해경, 1992; Kim Young Hee & Yoo Eun Kwang, 2000)은 임신·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성이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의 탐색을 통해 초산모의 모성전환과 모성역할획득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임신·출산은 임신한 여성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맥락 내에 있는 여성의 관점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에서 해석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자녀를 매개로 가족을 포함한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초산시의 경험보다는 자녀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의 문화적 맥락이 더욱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의 경험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구훈모, 1998; 이경혜, 1998; 이선옥, 1997; 이효재, 1996; 조혜정, 1991; Rappaport, 1994; Rowbotham, 1989; Ussher, 1989).

또한 출산기는 여성이 처음으로 여성본연의 기능, 즉 내적 공간에 직면하는 시기가 된다. 사춘기와 청년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기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온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은 경계로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출산체험은 커다란 충격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성숙이 시작되는 중요한 자아정체감의 발전적 갈림길이다(박아청, 1998).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정체감의 발달과정에는 항상 위기경험이 수반되는데 출산과 같은 부모전환기에 겪는 위기경험은 정체감 갈등위기로 상호모순된 다양한 의미로 정의된 자아개념에서 비롯될 수 있다(Whitbourne, 1986). 즉 출산에 의해서 여성에서 모성으로 전환되는 상황적인 위기와 여성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얽혀서 여성 나 자신으로서의 개인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어머니로서의 모성정체감(maternal identity)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애순, 윤진, 1997; 서봉연, 1988). 그러므로 출산기의 정체감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체감 위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체감의 틀에 맞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는 정체감 동화(identity assimilation)와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서 적절히 자신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정체감 조

절(identity accomodation)과정을 어떻게 균형있게 사용하여 내적으로 균형상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aumeister, 1985).

그러므로 경임부들의 효율적인 출산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자리잡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임신과 출산과정동안 어떠한 정체감의 발달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된 출산준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자유주의 여성주의 견해를 갖고 있는 본 연구자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머니 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이 맞게 되는 다음 자녀의 임신기간동안에 경험하는 정체감이 어떠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통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그들의 둘째 혹은 셋째자녀 임신기간동안 어떠한 정체감을 경험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연주의적, 종단적인 접근을 통한 탐색적 서술연구의 방법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임부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체감을 파악하고 해석하여 서술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을 위하여 실용주의와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횡문화 간호 이론의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관점에 지지기반을 둔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진행과정(ongoing process)하에 opportunistic, maximum variation, theoretical sampling에 의해 선택된 10명의 경임부들로 이들은 부부형태를 갖추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현재 둘째 자녀 혹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산부인과에 등록하여 산전관리를 받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정보제공자들이다<표 1>.

(표 1)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기호	연령	남편연령/ 형제순위	결혼 기간	자녀순위 및 성	직업	종교	학력
A	26	33/차남	6년	딸/아들	주부	기독교	대중퇴
B	29	35/삼남	2년	아들/아들	주부	무교	고졸
C	35	38/장남	9년	딸/딸	주부	무교	대졸
D	34	36/차남	5년	아들/딸	도서관사서	기독교	대졸
E	27	28/장남	3년	딸/아들	제택수공업	기독교	대졸
F	29	31/차남	5년	딸/아들	주부	무교	대졸
G	30	28/장남	4년	아들/딸	중학교사	무교	대학원졸
H	35	35/장남	9년	딸/딸	과외교사	무교	대졸
I	39	41/장남	11년	딸/아들	주부	불교	대졸
J	35	37/장남	9년	딸/딸/딸	주부	기독교	고졸

자료수집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임신기간동안 그들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정체감의 경험세계를 상세하게 알고자 심층대화, 참여관찰, 전화면담 등의 현장연구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하는 동안 연구자는 민감성(sensitivity)을 유지하고 대상자가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 가이드를 작성하여 광범위한 내용의 서술적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구조적, 대조적 질문으로 비형식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 임신한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 임신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임신이 나 자신에게 달라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 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변화하고 계신지요?
- 내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요?
-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요?

심층면담은 경임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7명의 경임부는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하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녀를 돌봐줄 지지체계가 있는 3명의 경임부는 녹음이 허락되는 조용한 직장 휴게실, 집 근처 제과점, 그리고 식당에서 면담하였다. 면담횟수는 미리 정해놓지 않고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첨가되지 않거나 새로운 차원이나 통찰력이 확인되지 않는 만족선에 이를 때까지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정보제공자 당 일정한 간격을 두고 최저 2회에서 최고 4회까지의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과 참여관찰 시간은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참여하여 한번에 짧게는 1시간에서 최고 5시간까지 소요되었다. 또한 수시 전화면담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신 경험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현장을 떠난 즉시 경임부와 면담상황을 회상하며 면담의 녹음내용을 필사하였으며, 참여관찰한 현장노트, 분석메모, 흐름도, 일기를 작성하여 이들 자료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2차, 3차, 4차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면담내용의 필사본을 읽어 내려가면서 반복되는 단어, 구, 절의 의

미를 찾아 핵심 개념을 발견하였고, 이들 핵심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읽고, 질문하고, 듣고, 탐색하고, 비교하며, 대조하고, 합성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 핵심개념을 주제별로 유목화하면서 각 주제에 따른 경험의 보편성(universality)과 상이성(diversity)의 패턴을 발견하였으며, 주제들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려 하였다.

### III. 연구결과

일상생활기술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 method)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둘째 혹은 셋째 자녀의 임신기간동안의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감이 표현되는 일상생활 양식 또는 특별한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탐색한 결과 공통적인 경험(universal experience)으로서 어머니됨과 상이한 경험(diverse experience)으로서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두 딸을 둔 어머니의 기죽은 삶의 핵심주제를 발견하였다.

#### 1. 공통 경험 : 어머니됨

모든 경임부들은 첫 번째 출산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경임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기간동안 자기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경험이 초임부 때와는 다른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경임부들은 출산과정동안 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가족 내에서 경임부 자신이 성숙해짐, 확장, 중요함, 소중함, 반추함, 가다듬음, 어머니 역할을 인지함, 잘 해내고 싶음, 계

획하고 준비함,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인지함,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함, 자녀의 소중함을 느낌, 여성 개인적 가치보다 모성적 가치를 우선함, 마음이 복잡함 등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합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됨(mother to be)을 실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임부들이 이전 임신과는 다르게 자기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어머니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은 “가정에서 내 역할이 중요해지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내 위치가 비중이 커지고, 그런 내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소중하고”, “사람의 포지션이 나를 참 많이 이끌어주고”, “지금 내 위치가 참 중요한 위치구나”, “그 동안은 특별히 의식하지 못했는데 둘째 아기 엄마 된다 싶으니까 내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한테 엄마라는 라벨이 붙기 전보다 참 많이 달라졌고 어스스러워 가는구나”, “엄마로서 참 많이 커진 거 같고, 꼭 찬 느낌, 벅찬 느낌, 애기 엄마가 된다는 느낌, 내 역할이 많이 확대된다는 느낌, 잘 해야되겠다는 느낌”,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경임부들은 자신을 위해 늘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사는 삶을 산다. 한 경임부는 임신기간동안 1년 과정의 자격취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심리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물리적 자원이 되며, 1년 과정동안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주변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었다. 이처럼 “늘 부지런하게 자신을 챙기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혼전임신이라는 혼돈과 갈등 속에서 20세의 나이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한 경임부는 6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철

이 들어 성숙해짐을 발견한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결혼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항상 복잡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자신의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함으로써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을 나름대로 조절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Gara와 Tilden(1984)의 연구결과에서 임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여성은 임신을 수용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생에 대한 조절감을 성취'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신과 더불어 경임부 자신의 "상황이 너무 틀려진다"고 인지한다. 즉 가정 내에 속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으면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인지하면서 "내 욕심만 채기면 가정이 버티어 나가지 못할 것 같고", "나만 사는 게 아니니까 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자연 포기하고 아기와 남편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되는 것이 어머니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경임부는 첫 아이 출산 후 그만둔 대학 교육의 기회와 둘째 아이 임신결정 사이의 갈등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 차지하고 있는 자녀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자녀출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삶의 계획을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출산이라는 상황에서의 경임부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와 모성적 욕구사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개인적 가치추구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모성적 가치추구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됨의 과정(process of mother to be : becoming a mother)이라고 사료되며,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임신기간동안 경임부 자신이 어머니로서 자리매김하는데는 임부의 연령, 과거의 임신 경험, 육아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1학년 때 첫아이를 임신하여 양가부모님의 허락 하에 결혼하여 배우른 상태로 대학 1년 과정만

마치고 첫 아이를 분만했던 경험이 있는 경임부는 첫 번째 출산과정 경험을 실감하기에는 20세라는 연령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임부의 연령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기 위한 긍정적인 경험 및 준비 부족으로 어머니됨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첫 자녀 분만후 대가족 형태로 살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고, 육아경험이 전혀 없는 정보제공자보다는 자녀양육 경험자이신 시어머니께서 첫째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육아경험여부도 어머니됨의 영향요인이다.

## 2. 상이한 경험

어머니됨에서 서술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경험 이외에 경임부들의 자리매김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경험들은 취업과 관련되었거나 세 번째 임신으로서 자매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개별 상황에 따라 자신을 자리매김하는데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상이한 경험으로는 세 가지 주제로 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취업 중인 ①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이번 임신이 되기 직전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 ②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③ 두 자매를 둔 어머니의 기죽은 삶이 묘사되고 있다.

### ①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취업모들이 임신기간동안에 자신을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과 사회에서의 직업인(career woman)으로서의 이중역할을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공부방(과외교사)을 운영하고 있는 한 취업모는 전업모인 친구들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첫 애 내팽개쳐 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친구들은 남편에게 고스란히 받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 황당한 느낌이 들고 “모든 엄마들의 관심이 가사·육아에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상대적 부족함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경임부들은 이중역할을 해내는 가운데 느끼는 상대적 부족함과 혼란스러움과 같은 역할갈등 속에서도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적 성취감이 역할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임신초기에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한 경임부는 임신한 상황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이중역할을 “해내고는 있는데 가끔씩 힘겨움을 신랑에게 투덜대고” 하지만 “잘 해내고 있다”는 직장에서의 반응에 사회적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직장생활은 “하고싶은 일을 하고 사는 자체가 밝은 마음가짐과 기쁜 마음을 갖게 하고, 피곤도 이겨나가게 하는”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육아 일, 가사 일, 그리고 직업 일 중에서 이 경임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직장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 역할 속에서 힘겨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직장생활을 통해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볼 때, 이 경임부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일보다는 직장에서의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자기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업모간의 자리매김 경험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취업모들에게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과 여성주의적 가치관중 어떠한 것이 더 우선되고 높이 평가되느냐에 따라 경임부의 인지세계의 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보다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중심적으로 여성의 전체(wholeness)를 들여다볼 때 ‘어머니됨’이 부여하는 모성역할보다는 여성직장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부여하는 개인적 가치를 더 높게 추구하려는 경임부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추구한다고 해서 경임부의 모성역할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사일과 육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연년생으로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 취업 경임부는 앞으로의 경임부 자신의 결혼생활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성역할 쪽으로 굴러가는 공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모성역할이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이미 한번 선택하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자유의지대로 방향을 바꾸거나 선택 혹은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의무’라고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 경임부들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니까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힘들 것 같다”, “1년동안 죽어났다”, “나한테 닥쳐진 일인데 하긴 해야되겠다” 라는 모성역할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자녀양육이 모성과업(maternal task)이기 때문에, 여성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출산을 한 여성이면 누구나 해야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지지체계의 도움, 그리고 모성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변화가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모성역할을 잘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취업 경임부들은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가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자녀를 돌봐줄 지지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직장 일을 마치고 가정에서도 연달아 자녀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으므로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있어서 가정은 심신의 안식처라기 보다 모성역할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해야 할 서비스 제공장소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 경임부들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모성역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지체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②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퇴직 후 1년 이내에 임신한 경임부들은 일상 생활에서 무기력함, 회의감, 우울, 짜증, 물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과 같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겨내고 싶어함, 솔직하게 털어놓음, 편안해짐,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긍정적인 자리매김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지 1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두 명의 경임부는 퇴직 후 “직장 생활로 쉬지 못하다가 쉬니까 좋았는데, 한달 지나고 나니까 회의가 생기고, 친구들은 다들 직장 생활 하는데 나 혼자만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임신하구 나서 하루종일 내 생활이라는 게 없이 늘어져 있다”는 무기력함과 회의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되는데 배가 불러져서 그걸 못하니까” 오는 우울과 짜증을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 반응이 임신과 더불어 다시 감정의 파도를 탄다. 이러한 기분을 한 경임부는 “나를 몰밀으로 밀어 넣는 듯한 느낌, 물 속에 내가 막 빠져드는 게 느껴져 헤엄쳐 나와야지 하면서도 그냥 늘어져 있는” 물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놀이방에 보내고 경임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으며, “나도 모르게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두 경임부의 자리매김에서 취업모로서 생활했을 때와 비교하여 물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은 자존감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서 헤엄쳐 나오기 위해 한 경임부는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해보지만 현재 임신중이라는 사실이 취업의 결정사유라는 사실에 자존감의 저하를 몸소 체험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임부는 주기적으로 자녀와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것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남편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자신 드러내기를 통해서 편안해짐을 느꼈고, 동시에 직장생활로 인해 첫 자녀 육아를 전적으로 시어머니께서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둘째 자녀는 놀이방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애기 키우고 재취업 기회를 갖고자” 하는 여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현실에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은 어머니로서 여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와 퇴직한 전업모 자리매김을 비교해보면 취업은 여성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며,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면에서는 자녀에게 충실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규범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취업모는 상대적인 부족함, 황당함, 혼란스러운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③ 두 자매를 둔 맘머느리의 기죽은 삶

10명의 정보제공자중 위로 두 딸을 두고 맘머느리로서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경임부는 2명이었는데, 이들은 임신기간동안 ‘아들을 낳아야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셋째 자녀 임신’이라는 사실이 경임부 자신을 기죽은 삶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들은 “장남이니까 꼭 아들 낳고 싶고 꼭 아들 낳아야지” 라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임신기간동안 경임부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으로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남편의 반응을 살피고 동시에 남편의 위로를 받고자 한다. 이러한 부담감과 불안감은 경임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 잇기 욕구가 심화된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경임부는 임신초기 아들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들에 대한 집착과 오기의 형태로 옹어리져 아들출산에 대한 기대와 포기 의 마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들 다 낳는 아들 “나도 낳을 꺼야” 하는 마음, 태아가 아들이 아니면 “낙태를 어떻게 해!” 하는 마음, 아들 태몽이라도 꾸었으면 하는 바램과 초조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5개월 정기검진때 전문의로부터 아들이라는 암시를 받고 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 그리고 아들이라는 존재의 위대함과 희망을 느낀다. 태아가 아들이라는 암시 이후로는 남편을 위해 이 힘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남편에게 응석을 부리고 남편이 떠받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다가도 경임부의 요구에 남편이 부응하지 못할 때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경임부 자신이 남편에게 아들 낳아주는 위세를 지나치게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족들이 경임부의 기분을 맞추어주기를 원하면서 경임부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 모두가 정신병자가 된 느낌, 감옥 같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임신말기가 되어 태아가 딸이라는 암시를 받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한 경임부는 “마음속으로는 순간 충격이었고, 정말 이젠 딸 셋 엄마라는 꼬리표가 달린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화가 났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이런 심정을 내색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준비했다는 듯이 “딸이면 어때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후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딸”이라고 스스로가 말해버린다. 두 딸을 둔 만며느리인 경임부에게는 ‘또 딸’이라는 암시를 받았을 당시의 심정이

마치 암 선고를 받은 환자의 충격과 같았을 것이다. 이 경임부는 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딸 셋 엄마’라는 자신의 암담한 미래가 한눈에 펼쳐지면서 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화가 나고 참혹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만며느리의 삶에서 한국 사회문화 속에서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는 ‘대 잇기와 남아선호 사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규범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며느리로서의 삶의 국면이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임신기간 내내 자신도 모르게 세 번째 임신이 “뻗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임신사실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주위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외출도 거의 안하고, 두툼한 옷으로 배를 가리고” 가족이나 주위에서 “딸딸이 엄마가 아들 낳으려고 또 야기 가졌구나” 생각할까봐 “쉬쉬하고 눈치보는” 기죽은 삶을 산다.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복(생명)을 혼자만 간직하고 조심하고 싶은 마음, 쑥스럽고 창피스러운 마음,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딸 둘 낳고 아들한번 낳아 불러구, 그러다가 또 딸 낳으면 어떻게?” 라는 경임부에게 상처를 주는 주위반응을 예상하여 자신의 임신을 숨기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각 가정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한 가정에 자녀가 둘이면 적당하다’, ‘자녀는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 ‘귀한 복은 혼자만 간직해야지 남들에게 알리면 복이 나간다’ 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만연되어 있으며, 형제를 자녀로 둔 어머니에게는 ‘아들아들 엄마’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매를 자녀로 둔 어머니에게는 ‘딸딸이 엄마’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임부 자신은 ‘세 번째 자녀 임신’이라는 고위험 부담에 남아선호 사상을 비롯한 출산에 관한 사회동행들이 덧붙여져 경임부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다.



경임부들의 임신기간동안의 자리매김을 종합해보면 <표 2>와 같다. 모든 경임부가 첫 번째 출산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경임부 자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공통되는 경험을 통하여 '어머니됨'을 실감하고 있었으며,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경험과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경험을 통해 취업이 여성 개인에게 있

어서는 자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모성역할 갈등을 갖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만며느리로서 두 자매를 둔 어머니 자신의 자리매김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있는 딸딸이 엄마들의 대잇기 부담감과 세 번째 임신에 대한 편치 않는 시선으로 인해 임신전기간동안 기죽은 삶을 살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표 2> 자리매김

주 제	개 념	영향요인
공통경험 : 어머니됨	성숙해짐, 폭참, 중요함, 소중함 반추함, 가다듬음 어머니 역할을 인지함 잘 해내고 싶음 계획하고 준비함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인지함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함 자녀의 소중함을 느낌 모성적 가치를 우선함 마음이 복잡	어머니의 연령 과거 임신경험 육아경험
상이한 경험 I :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전업모와의 차이에서 느끼는 황당감 상대적 부족감 혼란스러움 이중역할이 힘겨움 사회적 성취감이 일상생활 활력소 됨 직장인으로서 가치를 우선함 모성역할 부담감 금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신 발견함	취업 사회적 성취감 가부장적 가치관 여성주의적 가치관 지지체계
상이한 경험 II :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무기력함, 회의감, 우울함, 짜증남 몸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 이겨내고 싶어함 자기 드러내기 편안해짐 미래를 계획함	퇴직 재취업
상이한 경험 III : 두 자매 둔 만며느리의 기죽은 삶	대잇기 부담감, 불안감 남편에게 위로받고자함 아들에 대한 짐차, 오기, 기대, 포기 남아라는 사실에 위대함, 희망 여아라는 사실에 화남, 참혹함 땀땀하지 않음 숨기고 싶음, 피하고 싶음 쑥스럽고 창피한 마음 귀한 복 간직하고 싶은 마음	대잇기 욕구 만며느리 여부 기존 자녀의 성 셋째 자녀 임신 성역할 고정관념

#### IV. 논 의

인간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도 '여성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의 주요한 핵심은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이해를 형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확인하는 「자아 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박아침, 1998; 이은죽과 장지연, 1999). 여성은 생물학적 조건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모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왔던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의 평등과 개성을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의 현대사회로 변천해오면서 많은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삶이 전적으로 출산이나 자녀양육에 의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신경아, 1999;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6; 임정빈과 정혜정, 1998; 조은 등, 1997; 조혜정, 1991)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임신 경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체감은 '가족과는 분리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삶'이 묘사되고 있으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임신기간동안 첫 자녀 임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 내에서의 자기 자신을 새로이 발견하고 있다. 즉 출산과정에 있는 어머니들은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보다는 모성적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 가족 내에서의 경임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어머니됨을 실감하고 있었다. 특히 출산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므로 새로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서 경임부 자신은 '자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분이 되는 어머니됨의 과정 속에 새로이 태어날 자녀에 대한 모성역할을 예측하면서 어머니-자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젊은 부부들은 DINK족(double income, no kids)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경제력 및 부부중심의 가정생활을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되기'는 여성들의 자아정체감에 깊은 영향을 주어 임신이전에 갖고 있는 정체감을 변화시키므로써(이경혜, 1998; Ussher, 1989) 여성들의 긍정적인 모성적응을 위한 '어머니됨'이라는 모성정체감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복지나 어머니의 권리'라는 이분법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적으로 때로는 무모하게 투자하는 어머니,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모성보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가치 추구형의 어머니, 직장생활로 인해 대리 양육자에게 자녀를 맡긴 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어머니, 자녀 출산 후 허무함에 빠져버린 어머니 등 여성의 인생주기와 가족 내 역할과 위치,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들의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된다(이연정, 1995). 본 연구에서도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모성역할의 이중부담을 느끼면서도 직장에서의 사회적 성취감이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취업모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갖으려고 변화하는 경임부 자신을 발견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으로서의 개인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어머니로서의 모성정체감(maternal identity)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임

부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리 문화적 가치관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문화는 남아선호와 대잇기 욕구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여성이 가정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문화의 가치규범이 아들자녀가 없는 어머니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적 차별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의 경험을 시작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아선호도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태아시절부터 남아중심의 태교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한 사회화에 노출되어 평생을 두고 성별 사회화의 과정을 밟는 셈이다. 신생아 때부터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라는 성이 다른 가족 성원들 틈에서 옷차림, 행동, 냄새, 말투, 목소리, 아기 다루는 태도와 행위 등 무수한 차이를 부지불식간에 경험하면서 자란다. 즉, 객관적 성별 차이에 노출되고, 상호작용의 유형에서 자신을 대하는 타인들의 차이를 감지, 의식하고, 그러면서 더 자람에 따라 체계적인 성별 사회화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어릴 때부터 장난감, 그림책, TV프로그램, 아이들이 접하는 갖가지 교육·훈련자료에 이미 성적 차별이 일어나고, 어린 시절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도 이미 남녀차별의 관행은 사회마다 보편적이다. 게다가,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 교과내용, 학생과 관계하는 교사의 태도와 행위, 학교의 제도적 관행 등 모든 사회문화적 환경이 또한 차별을 진행시킨다. 고등교육에서도 전공 선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은 물론 일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마찬가지로의 성별 사회화가 지속된다. 그 결과 남성은 '남성다움'을, 여성은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이른바 성에 걸맞은 행동반응을 보이며 살게된다. 그러나 남녀 모두가 조금도 거부감없이 그것을 진리

내지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남녀의 성 역할은 따로 있고, 이러한 구분이 마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시계(social clock)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남녀의 차아속에 성 정체감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정체감이나 성역할의 구분은 제도적으로 사회속에 형성되어있고, 문화적으로 가치와 규범으로 정당화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문화적 지지를 얻고 있다(이은죽과 장지연, 1999; 임정빈과 정혜정, 1998)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이 우월하게 인정받는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서는 이왕이면 아들로 태어나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어머니일수록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책임완수측면에서 어머니의 억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로 딸을 둔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출산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하며, 일단 임신을 하게되면 제일의 관심사가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출산 전에 미리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만일 성 감별시 아들이 아니면 구박당어리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임신한 여성 스스로 뿐 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이 너무나도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1976년 39%에서 1991년 54%, 1994년 49%로 1회 이상의 낙태수술을 경험한 어머니들이 절반의 수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박인화와 황나미, 1993). 이처럼 남아선호와 대 잇기의 출산문화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변하여 왔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 딸며느리는 시어머니께 항상 기죽은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떳

뒤틀리지 못한 편치 않은 삶을 살게 되며, 일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부간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딸딸이 엄마, 딸 셋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딸을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고충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회, 즉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사회로 바뀌어 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부장적 남녀차별로부터 남녀평등 시민의식 고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 여성복지 증진, 여성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부차원에서 남녀평등 여성정책지원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를 두어 각종 여성정책을 구축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망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임신기간동안 어떠한 정체감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규범들과 가족문화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들의 임신기간 동안의 정체감 경험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서술하여 출산문화의 이해를 이끌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ic research method)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효율적인 출산기 간호중재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10명의 경임부들을 대상으로 2000년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일상생활 기술적 대화(ethnographic interview),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전화면담 등의 현장연구기법을 사용하여 종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중요한 핵심 개념들의 추상화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경험으로서 어머니됨, 상이한 경험으로서 취업모의 이중역할 해내기, 퇴직한 전업모의 감정의 파도타기, 두 자매를 둔 맘머느리의 기죽은 삶의 네 가지 주제로의 유목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자리잡은 가부장적 가치관, 대 잇기, 남아 선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가치 규범들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의식과 부의식 세계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임신기간동안 그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2. 여성주의(feminism),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높아진 취업욕구와 취업 가능성과 같은 사회 현상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경임부들은 임신기간동안 가족과는 분리할 수 없는, 가족과 더불어 사는 자신을 자리매김 하면서 '어머니됨'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취업이나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 개인으로의 자기성취 기대와 자기발전 욕구를 인정받고자 하는 '어머니됨'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여성 개인으로서 동전 양면과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경임부들에게 있어서 모성정체감과 여성 개인정체감의 균형과 조화는 여성 건강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될 것이다.

4. 따라서 간호실무자들은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과정에 있는 모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구성해 나감으로서 여성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갖고, 출산과정을 경험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전인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통합적인 간호접근을 통해 여성건강 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효모(1998). 가부장제 결혼과 가족. 한국여성학연구회 편, 여성학이해(pp. 71-82). 서울: 경문사.
- 김애순, 윤진(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희(1998).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분석 : 어머니됨.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2), 245-257.
- 김은실(1996).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119-153.
- 김혜원(1996). 초임부의 모성정체성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인화, 황나미(1993).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봉연(1988). 한국청년들의 Identity Crisi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경아(1997). 한국 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6).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염영미(1998). 여성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은광(2000). 여성의 건강과 산후조리. 2000 산후조리 전문교육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간호발전연구소 여성건강 연구부.
- 이경혜(1998). 중년기후여성의 역할적용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옥(1997). 신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 부상. 여성과 사회, 8, 211-220.
- 이연정(1994).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연정(1995).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 여성과 사회, 6, 160-183.
- 이연정(1996). 다시 생각하는 모성. 여성과 사회, 7, 314-325.
- 이은주, 장지연(1999). 여성·가족·사회. 서울: 세영사.
- 이은희(1995). 초산 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효재(1996).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7, 160-176.
- 임정빈, 정혜정(1998).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조은, 이정옥, 조주현(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 여성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혜정(1991).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화과 지성사.
- 조혜정(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조혜정, 김진명, 임돈희, 박부진, 김주희, 문복표, 김은희 편. 성, 가족, 그리고 문화(pp. 9-72). 서울: 집문당.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통계청(1995). 사회통계 조사.
-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남재(1989). 현대 한국 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Baumeister, R. F., Shapiro, J. P., & Tice, D. M.(1985). Two kinds of identity crisis. Journal of Personality, 53, 407-424.
- Gara, E. O., & Tilden, V. P.(1984). Adjusted control : An explanation for women's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pregnanci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5, 427-436.
- Khalaf, I., & Callister, L. C.(1997). Cultural meaning of childbirth : Muslim women living in Jordan.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5(4), 373-388.
- Kim Young Hee & Yoo Eun Kwang(2000). Concept analysis of mother to be in Korea.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eleventh Internatinal Congress of Women's Health. San Francisco, California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 Petchesky, R. P.(1980). Reproductive Freedom : Beyond 'A Woman's Right to Choose. Sign, 5(4), 677.
- Rappaport, J.(1994). Analytic work concerning motherhood. Psychoanalytic Review, 81(4), 695-715.
- Rowbotham, S.(1989). To Be or Not To Be : the Dilemmas of Mothering. Feministic Review, 31, spring, 82.
- Ussher, J.(1989). The psychology of the female body. London : Routledge.
- Whitbourne, S. K.(1986). Adult development.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ABSTRACT**

Key terms : identity in multigravida, mother to be

## An ethnographic research study on experience of identity in Korean multigravidas

Kim, Young Hee\*

The childbearing process is not only a biological phenomenon of a woman who gives birth to a child but also a sociocultural phenomenon which is reflected on her value, belief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acculturation. The familial relation and sociocultural context in the multigravidas are more complex and intermingled than in the primigravidas.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ic research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identity from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to the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in the Korean multigravidas and to understand deeply the perspectives of pregnant women reflected on Korean sociocultural values, beliefs, norms and familial culture.

The participants of 10 pregnant women in Seoul, Korea were observed for 10 months from January to October 2000 and interviewed

in their homes and comfortable place.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line by line method' and significant concep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mes, categories, and domai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4 categorized subjects : understanding the oneself - mother to be, performing the dual role, drifting the emotion, and living disheartened during pregnancy.

The participants were showed universality and diversity pattern in the self understanding process. The universal pattern were 'mother to be' showing maturation, life along family and priority on motherhood between being a mother and a woman.

The diverse pattern were taking the dual role in working mothers having the higher self actualized value and personal identity rather than maternal identity, drifting emotion in resigned mothers, and living disheartened in mothers who have two daughters and no son.

In conclusion, the Korean multigravidas

\* A Instruct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

A Counsellor in the sexual violence counselling institute, Yonsei Univ.

E-mail : kyykyh@hanmail.net

---

experienced womanhood as well as motherhood through the self understanding process with familial connections during pregnanc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f the harmony and the balance between a mother and a woman is accomplished, the woman will lead a healthy and high quality of life. Also, this study sought to confirm the sociocultural

factors affecting during pregnancy in the perspectives of the women with children. Therefore, the health care providers have to divert their attention from biomedical perspectives to biocultural perspectives integrating bio-psycho-sociocultural aspects of pregnant women in a clinical setting.